

철학사

50 스코틀랜드 리얼리즘

휘튼 대학의 아서 홈즈 박사

오늘 오후에는 스코틀랜드 실재론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칠판에 적힌 개요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를 통해 임마누엘 칸트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금요일에는 칸트의 사상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음에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 점을 미리 예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실재론자들과 그들이 철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소 소홀히 다루어 왔는데, 이는 당시 철학계가 영국 경험주의자들, 즉 로크, 버클리, 흄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들과 반발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19세기와 20세기의 경험주의, 존 스튜어트 밀, 그리고 실증주의에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현실주의자들은 계몽주의와 종교개혁 시대의 사상이 집단이었고, 에든버러 계몽주의 학파, 아니, 종교개혁이 어찌다 끼어들었네요. 18세기 후반 에든버러에서 일어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시대의 사상가들이었는데, 그들의 영향력은 20세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이들뿐만 아니라 영국 사상에도 그 영향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 현실주의, 특히 GE 무어를 떠올려보면 스코틀랜드 현실주의자들과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 저는 GE 무어와 토머스 리드 사이의 실제적인 언어적 유사점을 모아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역사적 맥락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영국 학술지 '마인드(Mind)'에 투고했지만, 최근에 같은 내용을 다룬 책이 출간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반송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작은 시도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당시 꽤 저명한 영국인이었던 편집자 길버트 라일에게 이별 편지에 사인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코틀랜드 리얼리즘은 상당히 중요한 사조입니다. 그리고 이 글의 끝에서 보겠지만, 임마누엘 칸트도 이 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그의 영향력은 단순히 직접적 실재론 전통에서 이어져 온 사상적 흐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토마스 리드가 데이비드 흄을 올바르게 해석했는지는 전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흄이 어떤 것도 믿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흄의 회의주의가 그의 신념이라기보다는 그의 마지막 말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흄에 대한 해석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여러분이 더 읽어보기 전까지는 흠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일 것입니다.

네 가지 주제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는 예상하시다시피 매우 영향력 있는 관념론의 기본 이론, 즉 표상론입니다.

우리의 정신적 자각의 직접적인 대상이 단순히 우리 마음속의 관념이라는 견해, 즉 우리가 직접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 내용뿐이라는 견해는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리드는 말합니다.

리드의 저서에서 그런 비판이 끊임없이 반복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그는 자신이 '상식' 이라고 부르는 것이 데카르트와 로크로부터 이어져 온 철학적 전통보다 사물의 진실에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상식은 철학적인 사고방식과는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견해는 이데아론 이전 철학적 문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듯합니다. 따라서 상식이 철학보다 진리에 가깝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이 이데아론보다 진리에 가깝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의 요점은 아이디어에는 부차적인 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에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향기로운 것은 장미입니다.

알 켄어요? 당신의 아이디어가 눈부시게 밝은 게 아니에요. 눈부시게 밝은 건 바로 그 빛이죠. 그러니 속성의 주관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즉 장미는 향기롭고 빛은 눈부시게 밝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더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그는 지각에 대한 표상론적 관점보다는 제시론적 관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물이 관념을 통해 우리에게 표상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 직접 제시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적 사물을 직접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직접적' 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세요.

이는 표상론의 간접적 관점과 구별되는 직접적 인식, 직접적 지식, 직접적 의식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를 직접적 실재론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표상론적 관점의 이원론, 즉 관념과 대상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관점과는 달리 인식론적 일원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표현으로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재론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단지 현상만을 보고, 관념만을 안다는 현상론과 대조됩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에서 리얼리즘입니다. 첫째, 물질적 대상과 그 속성의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독립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그리고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과 무관한 독립적인 존재. 다시 말해, 우리가 아는 대상은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거기에 존재한다. 버클리가 말했듯이, 그것들은 마음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상론뿐만 아니라 관념론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지요. 물질적 대상의 독립적인 존재, 그리고 우리가 그 독립적인 실재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까지요. 대상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현상론자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식이지요. 직접적인 자각이요. 그렇다면 관념론에서 그는 관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걸까요? 관념을 가지고 뭔가 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두 가지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항상 마음속으로 그것들을 생각하고 곱씹어 본다는 것입니다. 반성할 때, 기억할 때 등등 말이죠. 더욱이 인식론에서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바로 관념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락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엇이 사실이 아닐까요? 우리가 관념이라고 부르는 정신 상태가 없다면 어떻게 환상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을까요? 환상은 현실과 다른 정신 상태입니다. 오해는 현실과 다른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인식 외에도 아이디어를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물의 독립적인 실체와 진실을 파악 하려면 직접적인 인식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오류를 설명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리드의 요점은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에서 '아이디어를 갖는다'라고 말할 때, 여전히 직접적인 인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일 수도 있고 , 우리가 만들어낸 아이디어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기억으로부터 상상적으로 구성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념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관념들은 정상적인 기능에서는 지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기호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장미든 이처럼 평범하고 향기로운 표식이든, 내가 그것을 인식할 때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두 가지 정신적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속성과 함께 그 대상을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것은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만약 제가 다른 곳에서 그 냄새를 맡게 된다면, 바로 이런 종류의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디어는 역할을 하지만, 매개체로서의 역할은 아닙니다. 아이디어는 무엇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로서의 역할을 할 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매개체 역할을 하는 유일한 경우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념론뿐만 아니라 자연적 믿음, 즉 상식적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야 합니다 . 상식적 믿음 말입니다. 때로는 이를 상식적 실재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상식'이라는 표현을 잘 살펴보세요.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상식은 다른 감각들을 조화시키고 통합하는 감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공통 감각 (sensus communis)이라고 불렀습니다. 감각 . 그것은 다른 모든 감각들과 공통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통일감. 그런데 리드는 그런 의미로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리드는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에 더 가깝게 사용하고 있죠.

조지 버클리의 이상주의를 처음 읽었을 때 "아, 그건 상식에 어긋나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연적이고 분석적인 전제들을 거스른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식에 호소하는 것의 문제점은 한 문화권에서 상식적인 것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국인에게는 상식적인 문제들이 팀북투나 팀북스레드에서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연적 믿음'이라는 용어가 좀 더 안전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용어는 확실히 훨씬 더 의미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적 믿음이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흄에 이르기까지 자연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물론 윤리학과 과학에서는 자연 법칙을 다르게 이해해 왔지만, 철학적 맥락에서 자연을 사용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억하시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물리학에서 윤리학에 이르기까지, 항상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그것이 바로 징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드는 사물의 본질적인 속성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적 믿음은 인간의 본질적인 본성에 기반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포스트모던적 관점에서처럼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가치관을 만들고, 의미를 만들고, 신념을 만든다고요? 아니요. 리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의 섭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데이비드 흄과 상당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흄의 신념 심리학은 그가 어떤 신념들은 자연스러운 신념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것들은 자연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흄이 동물의 이성성에 대해 탐구한 그 흥미로운 장을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흄이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물들이 자신의 신념을 추론해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은 추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물은 마치 신념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건초 더미와 같은 외부 사물의 실재를 믿습니다.

아시 겠죠? 그들은 이것저것의 실재를 믿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존재들에 대해 특정한 것들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혹은 일종의

믿음은 말의 심리라는 본질적인 특성 덕분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흄이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과 스코틀랜드 실재론자들이 자연적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는 거죠.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실재론자들이 인간 본성이 보편적으로 특정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 섭리 안에서 특정한 믿음에 이르게 되도록 창조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는 자연적인 믿음에 주목하는 것에 대한 유신론적 정당성을 제시합니다.

사실 그것조차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데카르트는 비이성적인 능력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유신론적 정당성을 제시했고, 존 로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클리나 흄 덕분에, 우리의 이성적 능력인 직관과 증명이 데카르트와 로크가 생각했던 것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성적 능력이 실제로 한계가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은 갖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성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점에 대해서는 신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와 로크 시대의 인식론처럼 유신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성적 증명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관점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것이죠. 하지만 리드는 여전히 이성적 증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리드는 여전히 일종의 기초주의자입니다. 기초주의자란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 근본적인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리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진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진리는 자연스러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적인 믿음으로부터 추론을 해냅니다. 즉, 물리적 세계의 존재, 물리적 세계의 질서, 자연 세계의 장엄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자연적인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신의 존재에 대한 연역적 논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주론적, 목적론적 논증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는 1860년경 프린스턴 신학자 찰스 호지의 사고방식과 일맥상통하며, 그는 스코틀랜드 실재론을 기반으로 유신론적 논증을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20세기까지 수십 년 동안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나온 소위 귀납주의적 변증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실재론.

리드가 가진 이러한 자연스러운 믿음 중에는 논리의 법칙에 대한 믿음, 수학의 공리에 대한 믿음, 예를 들어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믿음 등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사물의 존재와 본질에 대한 믿음. 그리고 덧붙여 말하자면, 그는 물질의 원자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고립된 입자들이라는 이론 말입니다.

아니요. 인과관계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 맞다.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부르는 것 사이의 필연적인 연결고리는 직접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크와 같은 사람들이 제시했던 전통적인 주장은, 우리가 의지와 신체 사이의 인과 관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경험, 즉 성찰의 관념 속에서라는 것입니다. 의지와 신체의 인과 관계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고 스스로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자신의 신체적 감각 속에서도 인과적 힘, 인과적 능력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잖아요. 저는 가끔 이 지역의 연수기에 사용하는 40파운드짜리 연수용 소금 포대를 집안으로 옮기는 걸 예로 들어 설명하곤 해요. 양손에 하나씩 들고 옮기는 거죠.

양손에 하나씩 쥐고 팔에 힘을 주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온몸으로 그 감각이 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신체 곳곳에서 그 연결고리를 느끼게 되죠.

네, 리드는 그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점을 명심하세요. 임마누엘 칸트가 다시 이 문제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흄이 지적했듯이, 핵심적인 질문은 우리의 사물에 대한 지식, 즉 현재의 경험을 넘어서는 사실, 마음 밖의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핵심 질문은 인과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흄은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됩니다. 리드는 안다는 것은 단순히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연적 믿음이 있습니다 . 하지만 칸트는 이 두 가지 모두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과관계라는 개념의 다른 근원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건 정말 중요할 겁니다. 우리는 기억에 대한 자연스러운 믿음도 가지고 있죠. 제가 방금 한 말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말했다는 걸 기억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고 있는 겁니다 .

인간의 자유에 대한 자연적 믿음. 도덕적 원칙 에 대한 자연적 믿음 .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성향 속에서. 흥미로운 단어네요. 인간 본성의 성향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은 데이비드 흄이 도덕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바로 그 단어, 즉 '성향' 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저는 키스 얀텔이 쓴 데이비드 흄의 종교 철학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데이비드 흄의 저서에서 인간 본성의 성향을 다룬 장을 통째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흄은 자아란 단순히 상호 독립적이고 고립된 관념, 지각, 인상의 묶음일 뿐이며 , 우리가 알 수 있는 근본적인 정신이나 영혼의 실체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는 인간 본성에는 우리를 설득하는 특정한 자연적 경향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의식 속의 조각들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우리는 특정한 표준적인 방식으로 그것들을 결합합니다. 얀텔은 이것이 흄의 모순이라고 주장합니다. 흄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다른 자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드가 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성향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둔 성향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적이고 분리된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믿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믿음은 필연적인 믿음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필연적으로 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하다' 라는 단어는 심리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심리를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논리적 필연성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것 아닌가요? 논리적 의미에서 필연적 진리란, 그것의 유일한 대안인 모순이 자기모순에 빠져 거짓이 되는 진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안이 A 또는 비A이고, 비A가 자기모순에 빠져 거짓이라면, 논리적 필연성에 따라 A는 참입니다.

보시다시피, 그것은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진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1900년 직후에 이 점을 주목한 G.E. 무어가 이러한 자연적 믿음이 논리적으로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순이 자기모순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언급했던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시간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죠. 그렇죠? 시간은 비현실적이라고요. 그런데 그는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마다 그 말을 스스로 모순되게 하고 있어요.

이는 자기모순적인 견해입니다. 무어는 이를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으로 끊임없이 자신들의 말을 부정하는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토마스 리드의 주장과 매우 비슷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모순은 이론과 실천 사이에 존재합니다.

말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이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진실을 만들어낸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는 현실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당연히 실천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을 혼합하는 범주 오류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이러한 자연적 또는 상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드가 당신의 친구 데카르트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데카르트처럼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 명상 1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이 유리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만큼이나 이성적으로 대화하기에 부적합합니다.

인간의 신체에 그런 과한 생각을 유발하는 장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성적인 추론으로는 결코 고칠 수 없습니다. 자, 인신공격적인 발언이나 유머 감각은 차치하고, 분명한 것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무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타고난 성향이 잘못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타고난 믿음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자발적인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각, 즉 물리적 감각을 느낄 때, 그것은 주변에 어떤 물질적인 대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은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현상은 행동주의적 자극-반응 메커니즘처럼 들립니다.

직접적인 자각의 본질은, 만약 그것이 눈이라면, 자극이나 감각이 즉시 반응을 일으켜 무언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지만, 깜빡여야 했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행위는 무언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다음번엔 좀 더 잘할게요. 물론 리드는 행동주의 심리학 이전 시대의 인물이지만, 행동주의 심리학이 발전하고 왓슨 등이 등장한 이후에는 실재론자들이 감각 인식의 직접적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자극-반사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감각은 신이 우리에게 주도록 정해 놓은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하나의 징조야. 뭔가가 떠오르고 있어, 무언가가 되돌아오고 있어, 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말한다. 되돌아온다고? 그건 무언가가 되돌아올 거라는 징조야.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기억나는 것을 떠올리며 반응하고 확인합니다. 상상, 즉 그저 상상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것이 상상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비 날개를 가진 요정 기린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이 상상 속의 존재라는 것을 아는 당신은 그것을 물질적인 사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설록 흘즈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 전체에 기인하는 것이고,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것이지, 추론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자연스러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스코틀랜드 현실주의자들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신론은 제가 지적한 방식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저는 존 칼빈의 책에서도 비슷한,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내용을 발견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토마스 리드가 제가 읽었던 칼빈의 『기독교 강요』 판본과 같은 판본을 읽었다거나, 심지어 그가 자신의 판본에서 이 구절을 언급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시면 그 유사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존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다채로운 민첩성, 즉 하늘과 땅을 조망하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오래전에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상상력을 통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생각해낼 수 있게 해주는 능력 말입니다 .

보시다시피, 지각은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것이고, 기억은 오래전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있죠.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토록 훌륭한 예술들의 독창성은 (그는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 본성, 즉 우리가 만들어진 방식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성향을 주셨다는 증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 칼빈은 이것을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이는 반면, 인식론을 다루는 리드는 신의 존재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거기서 자연적 믿음에 대한 정당성을 찾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서는 GE 무어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에게는 유신론적 정당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GE 무어는 종교적으로 는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취했죠 . 자, 그럼 관념론, 자연적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잠시 멈춰볼게요. 의견이나 피드백 있으신가요? 네, 트로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아, 네, 네.

훙이 이러한 지각들의 묶음에서 어떤 질서를 발견하는지 궁금하고, 그 질서가 정말로 경직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화이트헤드도 같은 문제를 다루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 다루는지도 궁금합니다 . 아, 네 . 제가 기억하기로 훙은 이러한 지각들의 묶음의 내적 질서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의 언어는 단순히 의식의 무대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관념들의 언어일 뿐이다. 반면에 기억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우리가 그 순간에 의지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믿음, 즉 자연스러운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하지는 않는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지각뿐이라면, 무엇이 경향성을 가지는 것일까요 ? 그래서 아니요. 자, 화이트헤드의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네, 화이트헤드는 이 문제를 다루야 합니다. 음... 화이트헤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시 이 부분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화이트헤드는 자아가 단순히 의식의 사건들이 시간적으로 흐르는 흐름이라는 훙의 견해를 대략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걸 화이트헤드의 표현과 번역이 반반씩 섞인 것이지만, 어쨌든 의식의 사건들이 시간적으로 흐르는 흐름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 자체의 내적 특성, 내적 성격을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는 흄의 질문을 다뤄야 하죠 . 그는 흄의 질문을 다룹니다.

화이트헤드 연구자들 사이의 논쟁은 그가 그것을 충분히 잘 해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것을 해냈을까요? 바로 모든 경험의 순간이 인과적 힘이 결여되어 있다는 견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 화이트헤드는 실재론자들을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인과적 힘의 단위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과관계의 힘의 문제를 극복한 겁니다. 그게 바로 그가 해낸 방식이죠. 좋아요, 인간의 자유 말입니다.

데이비드 말인가요? 아니요, 자연적 관념은 아닙니다. 그는 마음과 대상 사이에 중간 관념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거부합니다. 그는 자연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판단이 포함됩니다 . 이해 되시나요 ? 생각에 대한 동의 또는 반대를 인식하고 확인하는 판단 말입니다.

그건 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흄 이론 개요를 공부하는 여러분 중 일부는 관념과 두 가지 종류의 지식, 즉 관념의 관계와 사실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념과 사실의 관계를 또 다른 종류의 관념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들은 두 종류의 판단이고, 두 종류의 지식입니다. 관념은 단순 관념과 복잡 관념으로 나뉘며, 인상에 선행됩니다.

자, 자유와 결정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데이비드 흄을 떠올려 보세요 . 그는 우리가 필연적 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동일한 쌍, 즉 선행사와 결과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상을 통해 인과 관계를 믿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 이러한 규칙 성은 인간 경험에서 나타나고, 인간의 자유와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흄과 결정론, 즉 필연론을 옹호하는 흄 모두 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두 흄 중 어느 쪽을 선택하든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드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리드는 인간의 행동에는 독특한 인과적 힘이 작용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를 인간의 행위 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20세기 논의에서는 행위 주체성에 의한 인과관계와 단순한 물리적 인과관계를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행위 주체성에 의한 인과관계는 인간 행위 주체를 포함합니다 .

리드가 주장하는 바는 우리 자신의 인과적 행위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일종의 힘, 즉 인과적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과적 행위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과적 힘 입니다 .

우리는 어떤 사건을 시작하고, 무언가를 일어나게 할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수업 끝났으니 나가셔도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이 어떤 사건을 촉발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믿음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당연히 문제는 그 권력의 행사, 즉 그 권력의 발휘 자체가 자유로운 것인지 아니면 결정된 것인지입니다. 흠은 우리가 행동할 자유는 있지만 선택의 자유는 없다고 말합니다. 동기와 행동 사이의 끊임없는 연관성 때문에 행동은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리드는 다시 한번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유란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한 자유는 단순히 이성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추론은 선행하는 생각과 신념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추론 행위나 그 결과가 아닙니다. 단순히 동기 부여의 문제도 아닙니다.

흠이 지적했듯이 우리의 동기는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대안적인 추론 과 대안적인 동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강력한 이유에 의존하지 않거나 의식적인 동기 없이 선택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추론과 동기는 결정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안을 선택할 자유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 그것이 바로 내성적 논증입니다. 여기서 그가 긍정하는 자유에 대한 자연스러운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제 그는 이에 대한 세 가지 반론에 직면하게 됩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 즉 충분이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드는 행위 자체가 충분한 이유라고 답합니다.

내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건 내 선택이다. 원인이 없다면, 그것은 변덕스럽고 위험하다.

이에 대해 그는 행위는 원인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대리인의 행위의 원인이며, 나는 변덕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세 번째 반론은 자유의지는 모든 것을 일으키는 신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견해를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지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 리드는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식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지식이 곧 그 일이 일어나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물을 만들어내는 데 관여하는 행위자들과 같은 이차적인 원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전형적인 주장들에 대해 반박하는데, 물론 그 반박이 얼마나 적절한지는 종종 논쟁거리입니다. 자,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의 윤리관을 살펴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거의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자연적 믿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그의 주장은 거의 예측 가능해집니다. 선택이라는 행위를 마치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게 묘사할 방법이 있을까요? 물리적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선택할 때 근육에 느껴지는 긴장감 같은 것들이 있겠죠.

네,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어느 쪽이 더 나은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결정이 쉽다고 는 하지만 사실상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말이에요. 네, 그런 때가 있죠. 어느 쪽으로 가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보시다시피,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호소하는 것이 바로 그런 종류의 것이죠. 좋습니다, 리드의 윤리학이군요.

방금 리드가 기초주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추론은 제1원리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네, 윤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학도 다른 과학과 마찬가지로 제1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윤리학은 다른 모든 과학과 마찬가지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혹은 윤리학은 과학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형이상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론의 근거가 되는 제1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드는 윤리학은 과학이며, 추론의 근거가 되는 제1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러한 제1원리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표현들은 대체로 동의어인 것 같습니다. 그는 제1원칙은 자명한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자명한 사실이다. 양심이 있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해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타고난 성향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도덕적인 삶에 적합하게 만드는 자연적인 욕망과 열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연적인 성향이죠.

그는 자연의 의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회적 미덕과 훌륭한 정부로 이어지는 공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직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양심이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며, 그것을 어기면 부자연스럽고 자연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도덕적 판단력과 양심은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미미한 씨앗에서 자라 성숙해진다고 말합니다.

타고난 성향. 그는 자연의 충동에 따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려 든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다시 한번 타고난 성향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식으로 도출하거나 이런 용어로 생각하는 윤리의 기본 원칙들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어떤 것들은 칭찬받을 만하고, 어떤 것들은 비난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옳고 그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원칙으로, 그 차이는 어딘가에 존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가능한 최선의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의 의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낼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가 기본 원칙으로 여기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며, 우리는 그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특정한 사례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흄을 비판합니다.

그는 흄의 관념론이 이차적 속성과 일차적 속성의 주관성에서 미의 주관성과 옳고 그름의 주관성으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즉, 흄의 윤리적 주관주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어떤 면에서는 놀랍도록 흄의 견해와 유사합니다.

그는 감정, 즉 정서적인 느낌과 판단, 즉 이성적인 판단은 도덕적 승인을 내리고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불가분하다고 말합니다. 이성과 감정 모두 말이죠. 이것이 바로 흄의 주장입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로 환원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는 의식적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판단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그 판단이 단순히 사건의 사실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에 대한 그의 경험주의적 접근 방식, 그의 효용주의적 접근 방식 말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을 넘어서 아이디어 간의 관계를 탐구하기 위함입니다. 판단에는 동의 또는 반대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더 큰 선을 더 작은 선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탕으로, 나는 한 대안이 다른 대안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판단합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나는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대안을 선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덕적 판단, 즉 실제적인 판단은 직관적인 원칙에 기반합니다.

음, 제가 바랐던 만큼 완벽하진 않지만, 이 시점에서 로크의 글에서 제가 찾은 가장 완전한 그림입니다. 로크의 글 중에서, 이 시점에서 말이죠.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이성과 감정. 이성의 역할에 대한 흄의 견해와는 다르네요. 음, 칸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죠.

이는 간단히 말해 우리가 스코틀랜드 사실주의 작가들에 대한 인식을 되찾을 기회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